사회복지사들의 새로운 현장, 국회

김승연 비서관 · 이수향 비서관 · 구슬기 비서

국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위풍당당 그녀들. 사회복지사들의 새로운 진출 영역 중에 하나인 국회. 과거에도 물론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있었겠지만 과거의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 길을 택했다면 그녀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 사회복지사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국회에 진출한 사회복지사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대략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국회 입문 첫 동기는 현장실습

국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된 것은 현장실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승연 비서관(열린우리당 민병호 의원실)은 학부때부터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연합회 활동 등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며 현장실습을 국회에서 하게 되었고 2004년 17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비서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수향 비서관(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은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장향숙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구슬기 비서(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도 시작은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으로 처음 국회에 발을 디딘 이후 현재는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승연 비서관

김승연 비서관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쉬운 분야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서 전공자들을 찾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반해 사회복지사들의 수요는 매우 적다. 사회복지사가 관심가지면 국회 내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독려하였다. 또 이제 막 국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구슬기 비서도 "내가 국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물어본다. 국회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아니라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봐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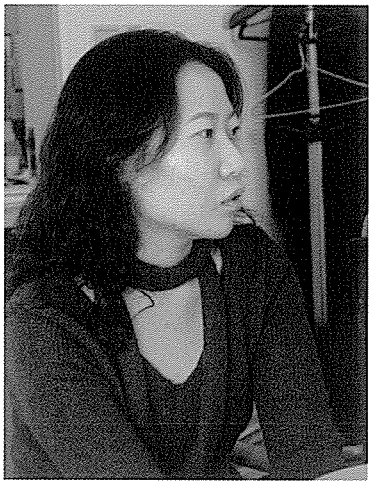
▲ 이수향 비서관

사회복지정책 보좌가 중심 업무

국회 내에서 비서관의 역할은 정치적 보좌를 하거나 정책적 보좌를 하거나 혹은 의원을 수행하는 수행비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좌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관련 질의문을 만들기도 하고 토론문도 작성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 및 법률만드는 일을 보조한다.

이외에도 신문이나 방송, 각종 매스컴을 통한 사회의 의견 및 방향을 수렴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행사에 사용할 축사 등을 준비하며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도

"사회복지라는 것이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쉬운 분야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서 전공자들을 찾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반해 사회복지사들의 수요는 매우 적다. 사회복지사가 관심가지면 국회 내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 구슬기 비서

한다. 다른 비서관들의 역할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다만 다양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과 업무를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 필요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국회의 경우 다소 낯선 분야인 것이 분명하다. 사회복지계의 블루오션을 점령한 이들은 사회복지분야가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향 비서관은 "지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만해도 전담공무원, 복지관, 협의회 및 협회, 시설 등으로 순서를 매겨 놓고 그 안에서만 자리를 찾는 것 같다"고 특정 분야로 치우쳐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 김승연 비서관은 "사회복지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사회복지사들 목소리를 내자

"다른 단체들은 목소리가 큰 반면 사회복지사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정책 현안에 대해 모른다. 또 학생연합회 활동 중 사회복지 관련 집회나 모임에 가봐도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는 모여도 전공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김승연 비서관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책적 관심을 독려하였다.

김승연 비서관은 "나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대로 적응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현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담고 모아 조직화해야 한다. 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은데 시장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구슬기 비서는 "회비를 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라는 느낌이 안난다. 멤버십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현장탐방은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사회복지계의 블루오션을 점령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해주십시오. 월간 Social Worker가 달려갑니다.